

문화예술 미래 모색 축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2~7일
교육포럼·아트날라리 등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과학관

교육포럼, 아트날라리, 어린이목수축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단체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축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일부터 7일까지 문화예술교육종합축제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과학관 등에서 진행한다.

먼저 '광주문화교육정책포럼'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문화재단 설립 10주년과 연계해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비사업 지방이양에 대비한 문화교육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다. 2일 오후2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황순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폭격있는 문화주체자 만들기'(최영화 호남대 문화예술교육원장), '일본의 시민문화예술교육'(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문화예술교육의 경향과 전망'(이선철감각자연구소 대표), '그 판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다'(김옥진(마음놀이터 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해 열린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의 한 장면.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는 2-7일까지 '과수원길, 위로...'를 주제로 50여 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공연,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인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과 대강당, 소촌아트팩토리 일원.

이번 아트날라리는 태음직업연구소(대표 신희홍)가 총괄운영을 맡았으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창의예술학교'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코로나시대 각자도생의 경험을 공

유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상상 토크도 예정돼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집, 우주(宇宙)'를 주제로 펼쳐지는 어린이목수축제(5-7일)는 플레이 하우스, 정글짐 행성, 문어 스튜디오 등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소는 광주과학관 잔디밭, 영상강문화관 잔디밭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 062-670-57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가 들려주는 쇼팽·베토벤·피아졸라

이아미 독주회, 4일 아문화전당

'첼리스트 이아미(사진)가 들려주는 쇼팽, 베토벤 그리고 피아졸라' 차세대 첼리스트 이아미 독주회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강혜령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쇼팽과 베토벤, 그리고 피아졸라의 곡이 연주된다. 1부에서는 쇼팽의 '첼로소나타'가 연주되는데 그가 생전에 출판한 마지막 작품으로 쇼팽이 연인 조르주 상드와 이별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만든 작품이다. 4악장 소나타 형식이며 매우 깊은 선율이 인상적인 3악장 '라르고'가 특히 유명하다.

이어 2부에서는 베토벤,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개설행진곡'을 주제로 삼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피아노 위에 첼로가 다채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펼쳐지면서 베토벤 변주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올해 탄생100주년을 맞이한 피아졸라의 '위대한 탱고'로 장식한다.



이아미는 광주예고 재학 중 유학을 떠나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스위스 베른 국립음악대를 졸업했다. 현재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사이플 첼로앙상블과 블리스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창극으로 만나는 판소리 '적벽가'

광주시립창극단 '적벽대전'
5~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판소리 '적벽가'를 창극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제56회 정기공연 창극 '적벽대전'을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6일 오후 3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총 2회 공연한다.

창극 '적벽대전'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적벽가'를 전통 창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올해 창단 32주년을 맞은 창극단이 처음 선보이는 '적벽대전'으로 의미가 크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심정가 예능보유자이자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인 유영애 명창이 직접 무대를 꾸미며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 예능보유자 안숙선이 작창을 맡는다. 또 연출 김영봉, 작가 사성규, 작곡·지휘 김성국, 안무 한명선 등의 제작진들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이번 공연은 중국 소설인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대전 장면을 차용해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한 후 제갈공명을 모셔와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사를 크게 이기고, 관우가 조조를 사로잡



광주시립창극단은 창극 '적벽대전'을 오는 5~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공연 연습 장면.

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내용을 전통 창극의 특성을 담아 재구성한다.

총과 의에 대한 강조, 조조로 대표되는 재배층에 대한 풍자, 군사들로 대표되는 빈한한 평민들의 안정적인 삶 추구, 전범적인 영웅에 의한 질서 회복 등을 공연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조조 역은 장영한이, 유비는 함승우가 맡았다.

제갈공명은 이은비가, 주유는 문상노가 연기한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연극으로 보는 1인 가구의 아픔

극단 토박이 '꽃이여 바람이여'
5~6일 민들레 소극장

극단 토박이가 정기공연으로 연극 '꽃이여 바람이여'(사진)를 선보인다. 5일 오후 7시30분, 6일 오후 3시 민들레소극장.

'가족(家族)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꽃이여 바람이여'는 원룸을 배경으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 공시생의 삶을 통해 1인 가구의 아픔과 인간성 상실을 이야기 한다.

낡고 오래된 '브라보 원룸하우스'에는 주인 김찬식과 세입자 이봉숙, 강미남,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박남호가 살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인 김찬식은 아버지가 남겨준 브라보 원룸하우스 마저 빛으로 경매에 넘어갈 형편에 놓였고 이봉숙

과 강미남은 노인복지센터에 다니는 게 유일한 일과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박남호는 여자친구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저마다 사연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브라보' 원룸하우스 사람들은 어느 샌가 서로의 처지를 풀어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지만 강미남에게 치매가 오면서 이들의 잠시 잠깐 행복했던 삶이 깨진다.

연출은 박정운이 맡았으며, 임해정·강중원·박정운·고영욱·윤재원·문재현 등이 무대에 오른다.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정실홍실'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아픔을 알렸으며 해마다 어린이 연극학교, 청소년 예술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전화(062-222-6280)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전은재 기자 ej6621@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